

## 12 세기부터 16 세기 후기에 걸친 시나가와의 번성

## 오이 가문

12 세기 말이 되자,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그 지역의 명칭을 성씨로 삼는 영주가 나타났습니다. 가마쿠라 시대※에 에바라군 오이고(지금의 도쿄도 시나가와구 오이 주변) 마을을 통치한 것은 가마쿠라 막부를 섬기던 오이 사네하루가 이끄는 무사 집단이었습니다. 오이 씨족은 분가한 시나가와 씨족 등과 함께 막부에 고용된 무사단으로서 활약했습니다. 조큐의 난(1221 년)※ 이후 오이 가문은 사쓰마국(주로 지금의 가고시마현) 등에 영지를 얻어, 활동 거점을 서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가마쿠라 시대: 12 세기 말부터 14 세기 초에 걸친 시대. 기존에 귀족을 섬기던 무사 집단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가마쿠라(지금의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에 막부(정치의 종추)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가마쿠라 시대라고 불립니다.

※조큐의 난: 고토바 상황 일파와 막부 사이에 일어난 쟁란. 막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 시나가와의 항구와 상인

무로마치 시대※의 시나가와는 무쓰라 및 가나가와(둘 다 지금의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 필적하는 중요한 항구도시로 발전하여, 태평양을 건너온 서양의 물자는 시나가와를 경유하여 간토 각지로 보내졌습니다. 시나가와는 사람들이 왕래하고, 물자가 유통되고, 도쿄만 연안 지역과의 교역도 활발히 이뤄져 번영했습니다. 15 세기 중반에는 구마노 지방(지금의 와카야마현 남부와 미에현 남부) 출신의 스즈키 도인 및 에노모토 도린 등 해운업

등으로 부를 쌓은 사람들이 활약했습니다.

※무로마치 시대: 14세기 초부터 16세기 후기에 걸친 시대. 아시카가 씨족을 중심으로 한 무사 집단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무로마치(지금의 교토부 교토시)에 막부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무로마치 시대라고 불립니다.

시나가와의 사원

12세기 말부터 16세기 후기의 시나가와에는 무사나 상인의 시주로 세이토쿠지·가이안지·호젠지·간교지·가이조지·혼코지·묘코쿠지(덴묘코쿠지) 등의 절이 건립되었습니다.

시나가와의 영지(靈地), 고텐야마

고텐야마(지금의 도쿄도 시나가와구 기타시나가와 4초메 부근)는 옛날에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약간 높은 언덕이었습니다. 에도 시대 말기인 19세기 중반, 시나가와 연안에 포대를 축조할 당시에 매립 재료인 흙을 채취하기 위해 언덕을 깎았더니, 14세기 초부터 15세기 말에 걸쳐 세워진 대량의 석제 솔도파※와 오륜탑※, 보협인탑※이 사람의 뼈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당시의 고텐야마는 내세의 행복을 빌며 공양을 올리거나 장례를 지내던 신성한 장소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배가 항해할 때의 안표이기도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석제 솔도파: 판자 모양의 편평한 돌에 부처를 상징하는 문자나 공양자의 이름, 공양 연월일 등을 새긴 것.

※오륜탑: 5개의 석재를 쌓아 올리고, 각 요소(땅·물·불·바람·하늘)를 표현한

것.

※보협인탑: 원래는 경전을 보관하기 위한 탑이었으나, 나중에는 돌로 외관을 본떠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1\_02\_01



묘코쿠지 절 그림(복제)

17 세기 초 성립 추정

원사료: 덴묘코쿠지 절 소장, 본 박물관 기탁

도쿄도 지정 문화재

묘코쿠지 절이 광대한 부지와 많은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의

그림입니다. 건물은 구마노(현재의 와카야마현 남부와 미에현 남부)

출신이라 전해지는 스즈키 도인의

기증에 의해 무로마치 시대인 15세기 중엽에 정비되었습니다. 게이초

19년(1614) 8월 28일에 오층탑이 붕괴되어, 그로부터 20년 후인

간에이 11년(1634)에 에도 막부 3대 장군 도쿠가와 이에미쓰가

재건하였습니다.

1\_02\_02



엔유지 절의 금강역사상 안에 들어  
있었던 나무패(복제)

1559년 7월

원사료: 엔유지 절 소장

엔유지는 도쿄도 메구로구 히몬야에  
있는 천태종 사원입니다. 나무패  
뒷면을 읽으면, 당시에는 히몬야가  
오이(지금의 도쿄도 시나가와구 오이  
부근)에 속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_02\_03



호젠지 절 석제 솔도파

14 세기 초부터 15 세기 말

호젠지 절 소장, 본 박물관 기탁

시나가와구 지정 문화재

12 세기 말부터 16 세기 후기에

왕성하게 만들어졌던 공양탑 중의

하나. 부드러워 글자를 파기 쉬운

동시에 얇게 벗겨지기 쉬운 특징을

가진 지치부산(産)의 암석을 이용한

솔도파는 간토 지방에 4 만개 이상

남아있습니다.

고텐야마에서는 도쿠지

3 년(1308)부터 엔토쿠 2 년(1490)에

제작된 것을 포함하여 116 개의

솔도파가 확인되었습니다.

다마가와강 유역에서 출토된 도코나메 큰독

지금의 후추시, 고가네이시, 무사시무라야마시, 다마시, 하치오지시 등

다마가와 강의 본류와 지류 부근에서 도코나메야키※ 큰독이

출토되었습니다. 이 독은 항구도시인 시나가와에서 다마가와 강을 통해

운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1\_02\_04



도코나메야키 큰독

고텐야마에서 발견된 큰독. 지금의 아이치현 도코나메시에서 15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독은 점토 띠를 말아 올려 만들었습니다. 당시 도코나메야키※는 태평양 쪽으로 다니는 배에 실려, 시나가와를 비롯해 전국 각지로 운반되었습니다. 무사시노쿠니 지역의 정무를 관장하는 관청이 있었던 후추시 등 다마가와 강 유역에서도 매우 유사한 큰독이 출토되었습니다.

※도코나메야키: 아이치현 도코나메시를 중심으로 제작된 도자기